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KDISSW 자활정책 Brief

발행 2022년 1월 발행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5층

빈곤청년의 자활사업 참여경험

김소형 진주지역자활센터 센터장

- 자활정책 이슈 brief는 자활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자활정책 이슈 brief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이 자료는 2018년 “20대 빈곤청년의 자활사업 참여경험”과 2020년 “청년의 빈곤과 자활사업 참여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 및 재구성 하였음

I. 들어가며

이미 우리사회는 빈곤이 경제적 상태만을 두고 평가하지 않으며 삶의 전반에 있어 배제와 박탈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 다양한 격차는 소득이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비롯해서 삶의 전반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격차, 대학진학의 격차, 사회자본의 격차 등의 삶의 격차는 또다시 자본의 격차를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박해남·박미희, 2021).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은 분명 빈곤청년에게는 더 심화되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빈곤 진입 그리고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더 많은 여정이 따라야 하며 극단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빈곤청년에게 이러한 불평등은 고정화 되고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빈곤 청년들의 삶이 자활사업을 통해 현재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며, 그 삶의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한가하는 것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빈곤청년이 어떤 환경과 경로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이라는 가치를 느끼며 살아갈 자유를 선택하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청년층은 빈곤정책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고 주목받지 못했다. 빈곤청년을 아동빈곤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빈곤의 대물림이며, 고용상의 문제로 본다면 근로빈곤 상황이다. 특히,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부모세대로부터 빈곤이 대물림 된 상태이며, 더 나아가 빈곤화 과정에 있는 2~30대가 결혼을 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또다시 빈곤한 상태로 살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빈곤청년은 학력, 고용, 부모의 빈곤, 질병 그리고 이혼 등 그들이 겪는 고통을 제대로 목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겪는 불행과 떨어드려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빈곤청년의 삶이 빈곤으로 인해 차이와 불평등으로 우리 사회의 부담인구로 타자화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자활사업이라는 장을 통해 빈곤청년은 다양한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빈곤에 대한 인식과 탈피의 과정에 대한 실천 그리고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는 개인적 산물이 아닌 사회적 산물이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 생활 최저기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 하며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빈곤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빈곤층의 자활 지원 및 잠재된 빈곤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활사업을 통해 새롭게 유입되는 빈곤청년의 삶에 주목하고 있다.

II. 빈곤청년에게 자활사업 장의 의미

빈곤대물림은 빈곤이라는 사회적 환경에 긴 시간 노출되어 있다. 빈곤의 진입과 이행과정 속에서 부모의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노동시장 지위, 부적절한 가정환경 및 가족 관계 등에서부터 사회의 불평등 시스템으로 인해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숨겨진 경로의 사회적 원인까지 밝히고 있다. 이러한 빈곤대물림은 한 개인의 삶이 빈곤이라는 환경 속에 있음으로 형성되고 침투 되는 아비투스로서 빈곤의 사회 문화적 환경이 내재된다. 빈곤이 대물림되어 빈곤한 가정에서 살아왔거나, 빈곤한 상태에 머물면서 살아온 청년들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들이 관계 맺는 사람과 공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실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이 걸어온 사회적 여정의 결과로 생성되기도 한다. 개인은 소속 집단들 중 하나에 속하게 되면서 맥락에 따라 독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며 다시 맥락에 따라 정체성은 바뀔 것이다. 즉, 빈곤청년의 정체성은 사회의 불평등과 배제 속에서 타자화되곤 했다. 관계적인 장내에 빈곤청년은 다양한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빈곤에 대한 인식과 탈피의 과정에 대한 실천과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문제로 부터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지속가능성과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위한 사회적 가치와 효과를 담아내는 사회적 발명품이다. 이러한 발명품은 역사적이고 지역적이며 문화적인 산물로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자활사업의 정책적 목표는 경제적 성과를 위한 탈수급과 취·창업을 제시한다. 하지만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의 특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에 매우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 회복의 시간과 사회적 공간에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활사업 공간은 근로빈곤층에게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힘을 획득하는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인 투쟁의 공간이기도 하며 그 공간에서의 활동은 그들에게 내재화되어 성향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행동양식이자 적응양식이 되기도 한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느끼는 자활사업에 대한 시각은 의존한다는 외부의 시선으로 인해 스스로 위축되기도 한다. 그리고 자활사업 정책목표 달성 즉, 탈수급을 위해 취업과 창업에 강요받는다고 인식한다. 반면에 자활사업 참여 경험은 자신의 삶에 변화를 시도하는 기회이고, 자립을 위한 디딤돌 또는 징검다리,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 삶의 회복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활사업을 통한 의존은 배제와 단절이 아닌 사회적 연결로써 자활사업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의 과정이자 문화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며, 자활사업은 제도적, 경제적, 문화적 배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삶에 대한 일상적인 도전과 선택의 투쟁의 장이 된다.

빈곤청년은 사회적 공간 속에 위치한 다양한 장의 하나인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빈곤을 경험한 청년들은 부모세대의 빈곤이 대물림되거나, 이른 출산 및 결혼 상태로 또한 근로빈곤상태이기도 하다. 이들은 다양한 선택지와 환경을 활용해 자신의 실천 능력을 맘껏 발휘 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기능습득 그리고 관계형성 등의 상호작용은 그들의 삶의 내재된 성향체계에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성향체계는 빈곤청년의 자활 아비투스가 되며 실천감각은 빈곤대물림으로 기능할지 빈곤 극복의 전략을 제공할지 중요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

자활사업은 한 개인이 빈곤한 자신의 삶에 대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대하고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되는 온전한 시민적 권리(자활)의 문화를 구조화하고 재생산하는 도구이며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 각자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전략들이 수용되기도 한다. 그동안 자활사업에 대해 우리는 성과에 대한 숱한 질문과 도전을 받아왔으며, 정부정책의 목표와 정책대상의 상이함은 탈수급이나 취·창업이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20여년간 자활사업에 요구되는 바는 변함이 없지만 이러한 자활사업 현장은 제시되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실천과 시도를 해왔다. 분명 지역자활센터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해낸 사회적 발명품으로써 빈곤으로 인한 삶의 질곡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활동으로 자활사업은 이들에게 일상적인 도전과 선택이 반복되는 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가 더 깊이 접근하고 사회적 인정을 위해서라도 자활사업은 한 개인이 빈곤한 자신의 삶에 대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이어야 하며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되는 온전한 시민적 권리의 문화를 구조화하고 재생산해 낼 수 있는 도구여야 할 것이다.

Ⅲ. 자활사업 참여 청년은 누구인가?

최근 신문기사에 의하면 2030 중년이 하던 자활에 줄섰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청년 세대의 빈곤과 사회경제적인 취약함으로 청년 자활사업 참여자가 늘어나는 것이 빈곤의 대물림과 빈곤 고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한계와 노동시장에서 배제 당하는 청년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다중격차가 더 심각해짐으로 사회안전망의 필요를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청년일자리등 사회전반의 문제 속에 청년이라는 세대의 특성을 감안해서 기회가 더 필요했고 살아온 날 보다 살아갈 날이 많음에 우리 사회의 생산 주체가 되어야 함에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절실했던 것이다.

2017년 말 기준 20-39세는 2,119명으로 전체 자활참여자의 약10%였지만 현재 2021년에는 4,284명으로 2017년에 비해 2배가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청년자활사업 참여자의 증가에 대한 시각은 빈곤대물림과 빈곤 고착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배제 당하는 청년들의 현 주소이며, 특히 부모의 빈곤으로 인해 자년의 빈곤으로 이어짐으로 이미 아동기 빈곤에서부터 다양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청년들이 불가피하게 자활사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자활사업 참여 청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가 요구되고 이는 건강한 성인기를 맞이하기 위함이며 아동빈곤의 연장으로 빈곤대물림 상황을 간과할 수 없으며, 또한 교육이나 취업 고용상의 문제로 접근하면 근로빈곤상황이라 할 수 있다.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시작되던 해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청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현재 자활사업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1) 자활사업 참여 청년의 가족배경

자활사업 참여청년의 가족배경은 기초수급가정이거나 본인으로부터 기초수급자 됨으로써 빈곤으로 진입하게 된 경우이며, 부모로부터 건강한 지원을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아버지의 폭력에 노출 된 어린 시절이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기억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형제를 돌보아야 하는 역할들이 있었다. 이들의 기억 속에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어머니와 함께 잠시 몸을 피해야 했던 기억, 아버지의 음주로 인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는 모습, 그리고 집을 떠나 살던 아버지가 생계수급을 위해 자신과 함께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형식적 관계는 가족이라기보다 타인보다 더 먼 사람으로 느껴졌다. 특히, 음주와 폭력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정서적 장애를 겪게 했다. 아버지의 폭력과 가족 내 생계는 어머니 책임으로 인해 아픈 형제를 돌보아야 하는 몫은 연구 참여자였고,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었음을 성인이 되면서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술로 보낸 시간이 많고 폭력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피해 집을 나가기도 했구요.”

“초, 중학교 때 최악이었어요. 아버지의 언어폭력은 나보다 오히려 동생을 더 힘들게 했어요. 아버지는 뇌졸중이 왔는데 아마도 알콜 중독이었을 거예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둘째, 가족기능 중에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이지 못한 역할기대에 반해서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자신들의 울타리로 여겨짐으로 유일한 보호자로 인식하기도 했다. 그래서 큰 언덕이기도 했다. 가족내 부모의 역할에 있어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과 태도는 어머니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무능력한 남편대신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된 노동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었다.

가구주의 사별 그리고 경제적 지위의 변화, 건강상태는 악화는 기초수급 신청을 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어머니가 가구의 실질적인 생계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전히 빈곤을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며 어머니 또한 건강상태의 악화는 빈곤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

“어머니는 몸도 안 좋은데 포장마차에서 토스트 장사를 했어요.....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어릴 적에 낯 업고 교회로 피신하기도 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해요.”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엄마가 안됐다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엄마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를 충분히 이해해요.....엄마도 아빠 때문에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다친 줄도 모르고 일하시다가 심해진 거예요.”

2) 자활사업 참여 청년의 사회관계

이들의 사회관계는 어린시절부터 멘토링, 심리 치료등의 지원대상이었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알게되고 다른 삶이라는 것으로 타인의 시선이 의식되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 특히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기를 싫어한다. 친구들과 관계는 유지하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표현을 할 뿐임. 기초수급자라는 사실과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주변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이해시키기도 어렵다.

건강상태된 누적된 불건강 상태로 이들이 사회생활을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벽으로 다가왔으며. 건강하지 못한 상태는 직장에서 견디기 힘들고, 어떤 일에 대한 자신감이나 성취감을 느끼기 보다 좌절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학력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그 학력자본이 경제적 자본으로 귀결되지 못하는 고용구조 속에 빈곤청년들에게는 더 무의미한 자본으로 남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는 미술치료를 받아서 좀 그렇고, 중학교 때는 그냥 엉터리... 문제가 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멘토링 3년 정도 참여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지역아동세터를 이용했고 가족상담센터에서 중3까지 상담을 받았어요.”

“군대 신검을 받을 때 재검이 나오고 몸도 안 좋아지고 어머니와 같은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알바를 해봤는데 버틸만하면 몸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몸이 무기력해져요.”

“대학요.. 그냥 대충 과를 선택해서 갔어요. 그때 하고 싶었던 것은 컴퓨터 쪽이었는데 토목과에 들어갔어요. 몸도 힘들고 왜 다니는지 모르겠고 해서 그만 뒀어요. 조건부수급자라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수급에도 문제가 생긴대요.”

“대학은 적성도 안 맞고 대학을 가보니 나와 부류가 맞지 않다는 생각도 했어요.....자활사업 참여하지 않으면 수급을 끊어야 한다 해서 참여 했어요.”

IV. 빈곤청년, 자활사업 참여 경험 의미

<표1> 자활사업 참여 의미분석

영역	하위주제	범주	속성(의미)
현실 인식	반복된 지위	생계를 위한 수급 유지	대학을 중퇴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으면 가구내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게 됨을 안내 받음.
		대물림	가구내 생계급여 수급 유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자신의 지위를 더욱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됨.
	외면 하고 싶은 현실	강제된 선택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며 처음엔 자활사업 참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또 다른 출구가 없는 현실적 선택임.
		살기 위한 방편	수급자로서의 삶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현실에서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도 함.
또 다른 세상과 만남	과거와 다른 사회경험	규칙적인 생활	지금까지 생활과 달리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출근해야 하니 힘들기도 하지만 체력이 좋아짐. 집에서 하는 일 없이 있는 것 보다 출퇴근을 하는 것이 좋음.
		존중 받음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가 생기고 내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 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며 존중받는 느낌이 새롭음. 일을 할 때도 기다려줌으로써 실수도 성장으로 다가옴.
	받아 들여 지는 시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시작이 두렵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데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김. 꾸준히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됨.
나를 만남	세상을 보는 달라진 눈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알아차림	꾸준한 일은 의욕이 생기게 하고 세상의 여러 이야기는 자신을 도전하게 함. 사업 참여를 통해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고 함께 일하며 다양한 생각에 부딪히기도 함.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때로는 의견을 말하기도 함.
	변화하는 자신을 느낌	배움이 새롭고 용기를 얻음	성격이 변하고 성장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됨. 살면서 생각해 보지 못한 것과 단편적이었던 생각이 조금씩 확장되는 것 같음. 현실을 알게 되고 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생각하게 됨.
또 다른 일상	설레이는 시간들	새로운 즐거움을 느낌	사업 참여와 교육, 프로그램들은 시작이 낯설기는 하지만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생각을 드러내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주 함.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과거와 다른 즐거움으로 다가옴.
	미래를 생각함	삶의 방향성과 생성적 능력	흘러가는 대로 일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미래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미래의 자신을 상상 할 수 있게 됨. 수급자로 계속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어려울 때는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자로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공존 하지만 자기 삶에 대한 애정과 건강성을 생각 함.

자활사업참여는 빈곤청년에는 생계를 위한 수급유지였고 새로운 일을 해보려 해도 부딪히는 현실은 희망보다 좌절이었다. 현실의 벽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며 수급자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이 안 좋아 취직을 해도 곧 그만두게 되거나 대인관계나 사회성이 떨어짐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기초수급 유지를 위해 조건부과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참여했지만 사업 참여 후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자신들 보다 건강도 더 안 좋아 보이는 어른들만 보이니 막상 자활센터에 오래 머물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신이 너무도 멀쩡해 보여 눈치가 보이기도 한다.

비록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받는 급여가 적을 때도 있지만, 사업 참여 중에 육체적으로 무리가 온다고 느껴 질 때는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생각에 극복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수급자라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만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현실에서 커다란 벽을 느낀다.

“젊은 나이에 다른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그 일을 왜하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내 몸이 견디지 못하니 그래도 이 일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 적성도 찾아가는 것 같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없어요.”

“친구들이 제가 여기서 농사짓는 다는 것 알아요. 제 친구는 250만원 정도 버는데 저는 겨우 100만원. 수급자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서 계속 일해야 하는데……대학등록금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처음 자활사업 참여 경로는 다양하다. 참여자들은 성인이 되어 사회에 발을 딛는 과정에서 현실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그 현실은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기에 수급 유지를 위한 조건을 맞추게 된다. 또 이러한 선택은 연구 참여자들로써는 피할 수 없는 최선의 현실적 선택이 된다. 그리고 수급자 가정에 태어나 성인이 되어 세대를 분리하기 전까지는 원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온전히 영향을 받는다. 가구 내 생계급여 수급 유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수급자라는 자신의 위치를 더욱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성인 이전까지는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된다. 다만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전의 지위 그대로 유지되거나 혹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참여자들에게는 수급자라는 사실을 때로는 외면하고 싶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엄연한 현실이며,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출구가 없는 현실적 선택이다. 조건부과에 의해 기초수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다른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단순히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에 의해 강제되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급을 끊어야 한다고 해서 참여 했어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큰 의미 없이 수급이 지금 끊어지면 안되니까 일단 가보자는 생각에 온거죠.”

“빈곤이 대물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제가 극복할 수 있는데 피하려 했어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길 바라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제 처지가 이러니 제 몸 상태가 이러니 제가 뭘 해도 위축되고 그래서 더 이 순간만 지나가길 바랬던 것 같아요.”

자활사업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없는 답안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 선택으로써 최선이기도 하다. 수급자로서의 삶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기도 한다.

“남들은 안받는데 나는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다르게 느껴져서 살짝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 안해요.”

참여자들이 외면하고 싶은 현실 중에 하나는 수급자라는 사실과 자활사업 참여다. 하지만 외면하고 싶은 이 현실이 현재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들이 불편해하는 시선은 젊은 사람이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다른 사람들 시선과 다른 사람들 생각이 이전에 연구 참여자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불편함이기도 하다.

“낙오자, 패배자 같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저는 20대이고 비록 제가 아파서 여기 온건데 여기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보면 제가 너무 멀쩡해 보여요. 그래서 남의 눈치 때문에 오래 있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참여자들에게 삶의 방편으로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가구의 수급유지를 위해서등 의미 없이 의지 없이 참여했어도 분명 또 다른 세상과의 만남이고 과거와 다른 사회경험이다. 규칙적인 생활은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고 동료들 속에서 실무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중받는 느낌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두렵지 않게 하고 과거의 자신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아무래도 저에게 일정이 생긴거잖아요. 하루에 뭘 해야 할지 놀면 더 놀고 싶다고 그런게 약간 없어졌죠. 축 처진 건 덜하고요.”

“저 엄청 무기력하고 나가기 싫어하거든요. 여기 와서 사람들과 잘 맞아서 그런지 출근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은 계획적으로 돈을 쓰기도 해요.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 쓰니까요.”

참여자들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서 새로움을 느끼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하나의 부품처럼 여겨졌다면 지금은 부품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하기 전에도 몸 상태도 안 좋으니 폐인처럼 지내왔다. 처음 자활센터에 자활사업을 참여할 때 마지못해 참여한다는 생각에 감정 없이 로봇처럼 일하려 하고 어색하지만 주어진 시간만 있어보자는 생각이 많았다. 그러나 자활센터에서 경험하는 관계와 여러 가지 활동들은 그동안 느끼지 못한 다른 느낌,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낀다.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예전에 못 느낀 사람에 대한 정, 신뢰같은 것을 느껴요.”

“맨날 혼자 있었는데 여기 오면 좀 편한 것 같아요.”

자활사업동안 여전히 갈등도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자신에 대해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참여 후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은 자신을 현재 시간에 맡기려 한다. 이제는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도 도움 받을 길이 있다는 것과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이라는 장을 만난 것은 또 다른 세상과의 만남으로 이 만남을 통해 존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과거와 다른 사회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며 조금씩 자신을 알아가고 존재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관계 형성과 교육 훈련 등 활동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나의 상처도 알아차리게 된다. 참여자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이다. 하지만 자활사업은 노동현장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노동자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단순히 서비스 수혜자인 것은 아니다.

“그동안 살면서 그나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활센터에 들어 온 거요. 그 외는 잘한 결정이 없네요. 자활센터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느끼는 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보는 시각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자활사업이라는 장은 청년들에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알아 치리게 하며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생기게 하는 시간이자 공간이라는 것이다. 자활사업은 청년들에게 또 다른 일상을 만들게 되고 과거와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자 자신의 삶의 방향성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더욱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회적 관계도 형성하고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건강성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V. 맺음말

빈곤청년에게 자활사업 참여의 의미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 문화적 경험들을 통해서 가난으로 위축되고 존중받지 못함으로 인한 배제를 경험했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자 또 다른 자신을 만나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로운 힘을 축적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와 시간들이 제도와 지침의 협소한 틀 안에서 일관성 없는 변화들로 인해 출발선이 다른 청년에게 3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취창업등의 성과과제는 본 취지를 거스르는 사업 운영의 형태를 양산하게 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이 시간 동안 질곡의 삶에 대한 보상 혹은 회복의 시간, 이후 자신의 삶이 소위 말해서 부모와 다른 삶에 대한 준비시간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힘 있게 자신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므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현재 청년자립도전사업단 3년차를 맞이하면서 분명 시작할 때 의미는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자활사업과 같은 틀로 같은 내용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빈곤청년이라는 특성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자활사업은 더욱더 청년개인에게 맞춤형 사업운영이 요구되며, 다양한 기회와 경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청년자활사업 관련 정책과 지역자활센터의 실행력 그리고 사업 참여 청년의 실천력을 통해 자활사업 가치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 빈곤 청년에 대한 자활사업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소형·김경호, 2018, “20대 빈곤청년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 연구”, 『사회복지정책』, 45(3): 63-94.

김소형·김경호, 2020, “청년의 빈곤과 자활사업 참여에 관한 문화기술지-Bourdieu의 이론적 관점”, 『한국사회복지학』, 72(2), 323-348.

박해남·박미희, 2021, “다중격차 시대 지역 청년의 자본과 아비투스”, 『경제와 사회』, 131: 55-87.